

번호: OP-F-003					
제 목	혈당 수준과 간암 발생 위험에 관한 코호트 연구 Blood Glucose Level and Liver Cancer Risk in a Korean Prospective Cohort(KMCC)				
저 자 및 소 속	광진1), 신해림2), 유근영1) 1)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, 2)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지원평가연구원 Jin Gwack1), Hai-Rim Shin2), Keun-Young Yoo1) 1)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,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, 2)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Cancer Control and Evaluation, National Cancer Center				
분 야	역 학 [암]	발 표 자	광 진 전공의	발 표 형 식	구 연
<p>목적: 간암은 한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암으로, 암발생률 및 암사망률 3위를 차지하고 있다. 현재까지 간암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만성 B형, C형 간염 및 과도한 음주 등의 역할이 잘 규명되어 있으나, 이외의 위험요인 및 요인간 교호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역학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. 그리고 이는 만성간염 및 과음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간암의 발생기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. 이 연구는 간암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서의 혈당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.</p> <p>방법: 1993년부터 2004년 말까지 한국인다기관암코호트(KMCC)에 입적된 19,688명의 대상자 중, 암유병자를 제외한 후 암발생 및 사망 여부의 추적이 가능한 13,78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. 중앙암등록본부에 있는 국가암발생DB를 이용하여 2002년 말까지의 암발생 여부를 추적한 결과 총 51명의 간암 발생자가 확인되었다. 코호트 입적시에 확보한 설문 정보와 혈액검사 소견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, 폭스비레위험모형을 이용하여 혈당수준에 따른 간암발생의 상대위험도를 산출하였고, 연령, 성, 흡연력, 음주력, B형간염표면항원 보유여부에 대하여 보정하였다.</p> <p>결과: 입적시 검사한 혈당이 109 mg/dL 이하인 군에 비하여, 110~125 mg/dL인 군은 간암발생의 상대위험도가 1.79(95% 신뢰구간 0.52-6.16), 126 mg/dL 이상인 군은 3.63(95% 신뢰구간 1.48-8.86)으로 계산되었으며, 상대위험도의 증가 경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(p trend=0.007). 또한 혈당이 126 mg/dL 이상이며 흡연력이 있는 경우 간암 발생의 상대위험도는 더욱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(5.4, 95% 신뢰구간 1.3-23.4).</p> <p>결론: 한국인에서 혈당이 높을수록 간암 발생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되며, 그 위험은 흡연에 의하여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의심된다. 이것은 인슐린 저항성 및 내당능 장애가 간암의 발생 기전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</p>					